6일 PGA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을 작성한 임성재가 공의 방향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철인’ 임성재 PGA 새 역사 썼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서 투어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 달성
21년 만에 기록 갈아치워… 498개로 3년 연속 버디왕 차지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사를 새로썼다.

임성재는 6일(한국시간) 끝난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이자 2020-2021시즌 마지막 대회인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뽑아냈다.

임성재는 이로써 이번 시즌에 498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PGA투어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00년 스티브 플레시(미국)의 493개. 21년 묵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3라운드까지 493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플레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임성재는 이날 2번 홀(파3)에서 6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일찌감치 새 기록을 수립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시즌 최다 버디 1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3년 연속 ‘버디왕’을 차지했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에 무려 34차례 대회에 출전했고 128라운드를 돌았다. 2000년에 123라운드를 치렀던 플레시보다 5라운드가 많다.

임성재는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은)어제까지 몰랐는데 TV 중계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다. 그래서 오늘 한 번 그 기록을 깨보자고 생각했는데, 2번 홀에 버디를 하면서 기록이 깨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이 버디 기록은 내가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해마다 최다 경기 출전 1위에 오르는 강철 체력으로 유명해진 임성재는 “어릴 때부터 PGA 투어에서 뛰는 게 꿈이었다. 많이 쉬어가면서 출전한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대회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대회를 참가하게 됐다. 이렇게 대회에 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에 우승은 하지 못했어도 마스터스 준우승을 포함해 5번이나 10위 이내에 진입했고, 415만 달러의 공식 상금을 벌어들이며 페덱스컵 랭킹 12위에 오른 임성재는 “시즌 초반에 우승 기회를 못 살려서 좀 아쉽다”면서 “그래도 투어 챔피언십까지 출전해 올 시즌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황의조 필승 다짐 “중요한 것 승점 3”

오늘 레바논과 맞대결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기회가 생겼을 때 득점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벤투호의 원톱 스트라이커 황의조(29·보르도)가 이라크전의 부진을 씻어내고 레바논전 필승을 다짐했다.

황의조는 6일 유튜브로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레바논전을 앞둔 각오에 대해 “공격수들은 물론 코칭스태프까지 어떻게 해야 기회를 만들고, 슈팅까지 이어갈지 연구하고 있다”라며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반드시 골을 넣어 승리하는 게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 2일 이라크와 1차전에서 15차례나 슈팅을 시도했지만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0-0 무승부에 그친 한국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예선전 초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라크와 1차전에서 득점에 실패한 황의조에게 거는 팬들의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황의조는 “쉬는 시간이 적었지만 잘 준비하고 있다”라며 “매번 득점할 수는 없지만 기회를 살리고 골을 넣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희조는 손흥민(29·토트넘)이 이라크가 ‘침대축구’를 구사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다. 골킥, 프리킥, 스로인 등 모든 부분에서 시간을지연하는 느낌이었다”라며 “어찌 됐든 그런 것을 신경쓰기보다 우리 플레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S 출전권 확보하라… 중위권 경쟁 가열

프로야구 선두 kt 60승 눈앞
4위~8위 승차 5.5경기로 치열

비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이번 주 팀당 시즌 경기 수 100경기를 돌파한다.

비를 피해 경기를 많이 치른 삼성 라이온즈·키움 히어로즈·한화 이글스(이상 102경기)와 SSG 랜더스(101경기)는 이미 100경기를 넘었다.

12일에는 전 구장에서 더블헤더가 열리는 등 전 구단이 이번 주에 7경기를 벌이기에 가장 경기 수가 적은 KIA 타이거즈(94경기), LG 트윈스·NC 다이노스(이상 95경기)도 시즌 100번째 경기를 차례로 치를 것으로 보인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KBO리그에서 100경기를 넘겼다는 건 남은 정규리그 경기가 40경기대로 줄었으며 그만큼 포스트시즌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최근 3경기 내리 11득점을 뽑아내며 무서운 공격력으로 3연승을 질주한 선두 ktwiz는 1승을 보태면 60승에 선착한다.

지난해까지 시즌 60승 선점 팀의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73.3%(30번 중 22번)다. kt는 공수의 균형이 가장 돋보이는 팀이다. 2위 그룹 LG와 삼성을 4경기 차로 따돌리고 독주 채비를 갖췄다.

창단 첫 한국시리즈 직행의 꿈을 안고 이번 주 KIA, 삼성, SSG와 차례로 대결한다.

kt는 수원에서 32승 1무 17패를 거둬 가장 높은 안방 승률을 자랑한다. KIA, SSG와 벌이는 홈 5경기가 반갑다.

시즌 초반부터 선두권을 형성해 온 LG와 삼성 역시 약간의 부침에도 가을 야구를 즐길 팀으로 꼽힌다. 두 팀은 4위 키움을 5경기 차로 밀어내고 2위 싸움을 진행 중이다.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 5승 1패를 거둔 삼성이 상승곡선을 그린 데 반해 LG는 에이스 앤드루 수아레즈의 이탈과 타선 부진으로 3연패를 당했다. LG는 최근 3경기에서 27점을 내주고 고작 3점만 뽑아 공수 균형 회복이 시급하다는 숙제를 안았다.

흥미 요소는 포스트시즌 출전권 확보를 위한 중위권 경쟁이다.

4위 키움부터 8위 롯데 자이언츠까지 승차 5.5경기 안에서 5팀이 겨루는 포스트시즌 티켓 다툼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뜨겁게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달 10일 후반기 레이스 재개와 함께 11승 2무 7패를 거둬 하반기 승률 2위를 질주하며 중위권 도약에 시동을 건 롯데의 맹추격이 볼 만하다.

삼성, SSG, 키움 등 상위권과 잇달아 벌이는 7연전에서 롯데가 돌파구를 마련하면 추석 전 중위권 판도는 요동칠 수 있다. 연합뉴스

온 힘을 다해 5일(현지시각) 미국 USTA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챔피언십 스페인의 가르빈 무구루자와 체코의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의 경기에서 크레이치코바가 포핸드를 치고 있다. 이날 경기는 크레이치코바 2-0으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꼴찌’ FC서울 감독 박진섭 성적 부진 사퇴

12일 성남전부터 안익수 체제

프로축구 K리그1 ‘최하위’ FC서울의 박진섭(44)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FC서울 구단은 6일 “박진섭 감독이 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후임으로 안익수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서울 지휘봉을 잡았던 박 감독은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하고9개월 만에 지휘봉을 반납했다. 박 감독과 함께 강명원 단장도 자진해서 사임했다.

박 감독은 2018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광주FC에서 2019년 K리그2 우승과 1부 승격을 일구며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광주FC를 K리그1 상위 스플릿인 파이널 A(6위)로 이끌었다.

지난해 감독 대행 체제로 팀을 이끌어왔던 FC서울은 박 감독은 새로운 사령탑으로 영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이번 시즌 부진이 이어지면서 27라운드까지 최하위의 부진에 허덕였다.

결국 FC서울은 분위기 전환의 마지막 카드로 사령탑과 함께 단장 교체를 꺼내 들었다. 연합뉴스